

해체되는 신념의 체계들과 수련자의 귀환

김기용 (노암)

로댕갤러리 안에 지옥의 문이 있다. 지옥의 문 안에 이미지들이 단정히 우리를 기다린다. 죽음을 관통하고 기다리는 우리 시대의 현실이 예술로 승격되어 우리를 기다렸다. 이미지들의 조합과 배제가 현대미술의 중요한 코드이고 풍경이다. 그 외에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을 경배하고 열망하는 이미지들이 우리의 삶을 허무에서 구제한다. 크리스탈로 지은 화원 안에 브론즈로 지은 죽음의 문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구원의 메시아(메타포)를 기다린다. 그런데 우리가 애타게 갈망하던 구원은 사실은 위대한 허구이자 미의 이데올로기이기도 하다. 이미지는 삶과 죽음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초대하여 한판 승부를 건다. 예술가들의 뒤편은 운명의 여신과 같은 비의적인 신비에 기대어 패를 돌리는 일이 주어질 뿐이다.

강홍구의 세계에 들어서려면 우선 그의 작업 전체에서 풍기는 어떤 심적 태도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것은 불안과 공포와 폭력으로 구조되는 현실의 삶과 그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유희와 유머이다. 그의 작업은 구태의 낡은 현실을 주워모아 저항의 도구로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것은 창조적 상상이라는 관념에 묶어두기에는 우리가 발을 담그고 허우적대며 생존하는 현실을 향해 돌격해간다. 분명 이번 전시의 이미지들은 그러한 작가의 세계와 작업과 사람에 대한 태도를 반영한다. 공포와 불안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계와 그로 인한 강박 신경증과 그에 수반되는 사고와 행동이 우리의 일상을 기괴하게 만들어간다. 그런 일상의 스펙타클이 작가의 이미지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데 그 의미와 맥락은 외면상으로는 불합리하고 기괴한 이미지로 변모하여 나타난다. 말하자면 일상을 구조하는 무의식의 차원이 의식의 검열을 피해 뒤틀리며 역설적으로 표출된다. 강홍구의 작업을 견인하는 두 운동이 있는데 하나는 현실과 비현실의 투쟁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러니와 패러디의 운동이다. 현실을 비틀어 비현실로 만들면 우리 앞에 이미지들이 등장하는데 사실 역설적이게도 그 이미지들은 현실의 뒤틀린 실재성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되어 메타현실이 된다. 메타현실이란 현재 진행형의 현실이다. 강홍구의 작품에서 사용되는 패러디는 한국 현대사를 자양분으로 각축하는 우리의 삶을 우회하여 드러낸다. 그렇게 역설들로 직조된 불안의 이미지들은 작가를 포함한 우리 자신의 확고한 신념체계를 안으로부터 전복한다. 믿음과 불안이 교차하고 현실과 비현실이 뒤섞이며 그 과정은 고스란히 기록된다. 디지털 이미지는 그렇게 튀어나온 숨겨진 것들을 포획하고 재구성하는데 제격이다. 강홍구 이미지들의 대체로 매우 불안정한 의미의 차원을 드러내는 아이러니에서 분명한 의미의 차원을 이끄는 아이러니 사이에서 부르르 진동한다.

지옥의 문을 지나 관람 동선을 따라가면 그 끝에 갑자기 수련자시리즈가 나온다. 수련자 시리즈에 대한 작가의 이야기는 뒤틀림이란 한마디로 집약되는데, 그의 모든 작업이미지는 그 뒤틀림을 향해 돌진한다. 사실 로댕갤러리 입구에서 시작된 이미지들은 작가에게는 마지막에 해당하고 깊은 구석에 배치된 수련자시리즈야말로 그의 출발점이자 깊은 무의식의 층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 전시의 디스플레이는 정확하게 그 순서가 역전되어 있는 것이다. 작가의 말대로 수련자 시리즈는 자신의 청소년시기의 깊은 인상에서 이

미 시작되었다면 분명 전시의 구성이 역전되어 있는 것이다. 마치 비현실의 이미지가 현실을 배재하여 그 존재론적 위치를 역전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귀환한 수련자를 만나는 것이다

이 모든 역설과 모순의 과정이 이번 전시를 특징한다. 전시를 개막하는 자리, 로댕 지옥의 문 앞에 선 작가의 모습은 문 중앙에 있는 생각하는 사람처럼 만감이 교차하고 우리를 규정하고 조율하는 모든 관념들이 일제히 한 장소에 집결하여 일순간 작가의 현실과 우리의 현실이 거대한 이미지의 놀이 속에 녹아들며 해체되는 듯 했다. 수련자는 살아 숨쉬는 현실을 원한다. 그러나 이미지들은 영원히 현실로 부터 딱 반 걸음 떨어져있다. 그 폭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작가에게 있어서 수련자 시리즈는 현실의 진정성을 향해 내딛은 최초의 한 걸음이다.